

6/24/18

설교 제목: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호세아 5 장 8-15

- (호 5:8)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 (호 5:9) 별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 (호 5:10)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 같이  
부으리라
- (호 5:11)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 (호 5:12)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 (호 5:13)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야렘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 (호 5:14)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절관주** 시 7:2, 호 13:7
- (호 5:15)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언젠가 신문에서 미국인들의 22%가 그들이 살아 생전에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한 설문  
조사 결과 내용이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종말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으로 사회적인 혼란으로 인한 내전, Nuclear War, 경제 붕괴,  
빈부 격차로 인한 폭동 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부자들은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 나름대로 피난처를 준비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링크드인(LinkedIn)의 공동창업자 리드 호프만(Reid Hoffman)은 실리콘 밸리 억만 장자들의 절반  
이상이 외딴 섬을 사거나 지하 벙커를 마련하는 등 미래에 있을 혼란을 대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종말이 오면 어디가 안전할까요?

외딴 섬? 지하 벙커?

세상 어디에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안전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종말에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수 있는 곳은 하나님의 장막 이외에 아무 곳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생의 종국을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을 통해 실랄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호 5:8)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나팔을 불며 벳아웬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네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호 5:9) 별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였노라

나팔은 전쟁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앗수르가 북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남 유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기브아, 라마는 남 유다 북쪽 북 이스라엘과 국경에 위치한 전략의 요충지로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성읍들입니다.

벳아웬은 벳엘의 다른 명칭으로 북 이스라엘 최남단 남 유다와의 국경 지대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앗수르는 이 지역을 통해 곧바로 남 유다에까지 진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북 이스라엘에만 그치지 않고 남 유다에도 닥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중간에 위치해 있는 기브아와 라마 그리고 벤아웬 모두는 비교적 전쟁에서 안전하다고 생각되었던 지대입니다.

대적들이 침략할 때 주로 북쪽이나 남쪽으로부터 쳐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전하다고 생각한 이들 도시들마저도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하나님께서 벌 주시기로 작정한 인간에게 안전한 곳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에게는 회개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었지만 그들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그로 인해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 받습니다.

(호 5:10)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 같이 부으리라

'경계표'란 땅의 소유를 표시한 것입니다.

경계표를 옮긴다는 것은 남의 땅을 빼앗아 자신의 땅을 넓히는 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땅에 대한 개념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땅은 엄연히 하나님의 소유였습니다.

그러므로 땅은 사고 파는 매매의 대상이 아니었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빼앗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 분배해 주신대로 각 지파가 삶의 터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율법은 땅을 사고 파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남 유다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가난한 자들로부터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흉년에 비싼 이자를 붙여 곡식을 꾸어주고 기근이 계속되어 불어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자들의 땅을 빼앗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들 하나 하나를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입니다.

그런데 땀땀거리며 잘 먹고 잘 사는 지도자라는 것들이 벼룩이 간까지 빼먹으려 눈이 시퍼렇게 달려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배려하기는 커녕 그들의 것마저 빼앗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 드는 유다 지도자들에게 진노를 물같이 쏟아 부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또 북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지적하십니다.

(호 5:11)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받는도다**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기 보다 사람의 명령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북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았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왕들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악한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더라'는 말이 계속 반복하여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의 방법을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 따른 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말로 호세아 선지자 때 여로보암 2 세가 다스리는 북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음란하였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들 '하나님 말씀이 밥을 먹여주냐?'라고 합니다.

북 이스라엘이 바로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밥을 먹여주냐?'라는 말은 '농사를 지을 때는 농경의 신 바알을 따라야 농사가 잘되지 무조건 하나님만 따른다고 농사가 잘 되냐'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인간이 똑똑한 척해도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밥 먹여 주지 그럼 바알이 우리 밥을 먹여 준다는 말입니까?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른다고 무조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평안과 안락, 그리고 부요를 누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는 세상을 따라가는 그 길보다 더 큰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우리를 참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시련과 고난은 준비되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과정입니다.

그 길이 당장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해서 망하는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람의 명령을 쫓아 얻은 성공은 거짓된 성공입니다.

사람들이 사탄의 계략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명령을 따른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에게 심판을 선고하십니다.

(호 5:12)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좀'이나 '썩이는 것'은 곰팡이들로 처음에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점점 속으로 파고 들어 무너지게 합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곰팡이처럼 점점 부패해져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자신들이 곤경에 처했음을 인지하고 해결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택합니다.

(호 5:13)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앗수르로 가서 야렘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국가가 풍전등화 같은 위기 상황에 처하였음에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아니하고 주변 외세를 의지했습니다.

야렘 왕은 앗수르 왕의 별칭으로써 위대한 왕이라는 뜻입니다.

북 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의 부패와 그 아들 스가랴의 타락으로 인하여 마침내 혁명이 일어났고 여로보암 왕가가 무너졌습니다.

그 뒤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므나헴 왕은 앗수르 왕 불이 침략을 하려고 하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지 아니하고 세상적인 방법인 돈을 주고 해결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왕하 15:19) 앗수르 왕 불이 와서 그 땅을 치려 하매 므나헴이 은 천 달란트를 불에게 주어서  
그로 자기를 도와 주게 함으로 나라를 자기 손에 굳게 세우고자 하여

(왕하 15:20) 그 은을 이스라엘 모든 큰 부자에게서 강탈하여 각 사람에게 은 오십 세겔씩 내게  
하여 앗수르 왕에게 주었더니 이에 앗수르 왕이 되돌아가 그 땅에 머물지  
아니하였더라

남 유다 왕 아하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압력과 블레셋, 에돔의 공격을 친 앗수르 정책을 사용하여 막아보려고 애를 썼으나 앗수르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괴롭힘만 받았습니다.

(대하 28:20)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대하 28:21)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앗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북 이스라엘, 남 유다,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자신들의 병과 상처를 깨닫기는 했으나 진정한 치유책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잘못된 해결책은 결국 그들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북 이스라엘은 호세아 왕에 이르러서 BC 722년 앗수르 살만에셀 왕에게 멸망당합니다.

남 유다도 BC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당합니다.

남 유다와 북 이스라엘이 이만큼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과 사람을 의지하다가 결국 멸망당한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위기가 닥쳤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때 바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북 이스라엘과 유다를 일격에 쓰러뜨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호 5:14)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잡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사자'나 '젊은 사자'는 심판자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내가'를 세 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심으로 심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거기서 건져낼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호 5:15)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끝내신 후 그들을 떠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살리려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스스로 깨닫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세상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을지라도 그 고난과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다시 찾을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수 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이제나 돌아 올까 저제나 돌아 올까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밖에 있으면서 세상에서 형통한 사람을 부러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종국은 멸망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북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다가 망한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북 이스라엘이 위급한 상황에서 앗수르에게 도움을 받으려다 멸망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남 유다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가난한 자를 착취하려다 하나님의 진노를 산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배신할지라도 우리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세상이 험난해지고 종말이 와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승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장은 고난과 역경이 따를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견디면 그 종국은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서 인생을 승리로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